



2018 년 수녀회 총회

소집

사랑하는 수녀님들,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과 그 여정을 전하는 창세기 12 장의 이야기는 수녀회 총회를 향해 길을 떠나는 순간에 있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 12, 1)

저는 총회소집 편지를 통해 수녀님들이 자신에게 희망 가득한 미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아는 이들이 품고 있는 신뢰를 지니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히브 11, 27) 2018 년 총회를 향해 길을 떠나기를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말씀, 하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창세 12, 2)

이 말씀에 따라 자신의 소유와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 자신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길을 떠나 유목 생활을 이어가던 아브라함은 네겍에 도착합니다.



2012 년 총회 이후, 우리는 우리와 관련 있는 것, 우리의 것을 모으려고 노력했고,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를 형성하는 것들을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 영성의 초점이 되고 모든 것이 빛나고 결합되는 복음적 자리' (2012 년 총회문헌 8 쪽)인 복음의 세족례 장면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새 모원으로의 이사, 수녀원 홈페이지 새 단장, 수녀회 새 로고는 우리의 정체성과 수녀회에 대한 소속감을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영적 유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의 개인적 관계, 공동생활 그리고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이 창설 초기부터 서로 연관되어있음을 재발견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일제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의 모든 카리스마는 **'성장하다'**라는 말과 병행한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의 흔적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땅 위에 천막을 세우고 주위로 못을 박으면서도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라는 교황님의 절박한 요청에 깨어있었습니다.

이처럼, *'너의 천막 터를 넓혀라. 네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펼쳐라. 네 천막 줄을 길게 늘여라'* (이사 54, 2)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신서원 10년 차 이상의 젊은 수녀님들에게 주어진 **'에파타'**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긴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녀회 **동반자**에 대한 개방도 폭넓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계약과 관계의 하느님이시자, 우리 자신의 국경을 넘어 형제적 공동생활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주된 약속은 나라도, 민족도, 이름도 아닌, 한 사람에게 내리신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세상의 모든 종족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입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창세 12, 3)



수녀회 대의원 회의와 총참사위원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들을 나눈 후,

지난 총회들(보편예로의 개방(1988 총회), 4 대륙간의 대화(2006 총회), 수녀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법(2012 총회)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수많은 교서들에서 들려오는 호소를 듣고, 난민들, 배척당하는 이들, 극도의 빈곤 상황에 부닥친 이들의 애틍는 외침에 마음 깊이 아파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의 열망과 투쟁 안에 뿌리를 내린 총회를 가질 것을 다짐했고, 이 결정을 다음과 같은 주제로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지닌 이 세상 안에서, 상호문화주의는

하나의 요청이자 임무이다.

다양한 모습을 지닌 이 세상은 바로 객관적으로 보고 관찰해야 할 하나의 현실입니다.

'다른 것'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질문을 가지고,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히 살펴봅시다.

어떻게 이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현실을 우리의 미래에 있어 하나의 위협이 아닌 약속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다문화주의'에서 '상호문화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심화하고, 우리 각자 안에, 수녀회 안에, 우리 주변에 **복음의 문화가 싹트고 자라나게** 할 것인가?

이는 '교육회 행렬'에 발맞춰 걸어가면서, 현재 자신의 가능성, 장점과 약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내적 순례 여행을 하는 각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총회의 은총은 선출대의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각자에게, 소속감을 강화하고 향후 6년을 위한 최상의 식별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과감히 길을 떠나 모든 종류의 벽을 무너뜨릴 미래를 향해, 보편적 형제애의 이상향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날, 보편적 형제애는 바로 사명의 다른 이름입니다!



2018 년 총회는

2018 년 7 월 26 일부터 8 월 11 일까지

룩셈부르크 펠츨 학교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총회 진행은 2012년 총회와 마찬가지로 성 십자가 수녀회 미셸린 수녀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총회 시작 피정은 7월 28일(토) 저녁부터 29일(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피정 지도는 나자렛 수녀회 안 수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들에 걸쳐 엘레나 라시다 교수님과 함께 주제를 심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총회에 앞서, 각 관구와 지부에서는 총회를 하며, 대리구에서는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총회 개시를 위한 전체모임 때에 공지될 일정과 양식에 따라, 관구 및 지부총회 전에 대의원선거가 진행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기념비적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수녀회가 진출한 국가들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거나(칠레)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고)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로마 12,2)

물론 각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도적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아보고, 자문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오시어, 애덕과 분별 그리고 존중이 이루어지도록 보살펴주시고, 필요하다면 다시 하느님의 방향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은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여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수녀회와 세상의 공동선이 바로 총회 대의원 선출과 미래의 사도직 선택을 위한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의 안식일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나라에 있는 공동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 5)

영원한 삶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경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눈부시게 변모된 피조물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고, 궁극적으로 해방된 가난한 이들에게 어떤 이바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243 항)

수녀님들과의 형제적 일치 안에서, 저 역시 '주님께서 보여주실 나라'를 찾아 떠납니다!

2017년 6월 24일 낭시에서

총장 비비안 프랑수아 수녀

총회 준비 과정 및 일정

2017 년 6 월 말: 각 수녀에게 보내는 총장의 총회소집 편지

2017 년 7~10 월: 나라별 총회개시 전체 모임

2017 년 10~12 월: 개인 및 공동체별 준비 단계

2017 년 12 월 17 일 / 2 월 18 일: 관구, 지부총회 대의원 선출

나라별 총회와 대리구 모임을 위한 안건 수집

2018 년 2 월 18~4 월 8 일: 관구, 지부총회 및 대리구 모임

2018 년 5 월 1 일: 총참사위원회에 안건 전달

2018 년 5 월 말: 총참사위원회에서 안건 종합

총참사위원회의 총회 대의원들을 위한 자료집 작업

총회 대의원 소집 편지 - 총회 대의원 명단을 전체 수녀회에 공지



총회 대의원 구성

총참사위원회는 수녀원 대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회 선출대의원 수를 결정했다. (참조. 회칙 74, 75 조)

총회 참석 대의원 43 명

당연직 13 명 : 총참사 위원: 5 명

본부 재정 책임자: 1 명

전 총장: 1 명

관구장 / 지부장 / 대리구장: 4 명

수련장: 2 명

선출직 30 명 : 알제리: 1 명

아프리카: 5 명

한국: 12 명

유럽: 12 명



Nancy, le 24 juin 2017

CHAPITRE GENERAL 2018

CONVOCATION

Mes chères sœurs,

Le récit du départ et du cheminement d'Abraham vers le pays de Canaan (Gn,12) est de nature à nous inspirer au moment où, en Congrégation, nous nous mettons en route vers un Chapitre.

« Va t'en de ton pays, de ta patrie et de la maison de ton père, dans le pays que je te montrerai. » v.1

Par cette « convocation », je vous invite donc à vous mettre en chemin vers le Chapitre 2018, *« commesi vous voyiez l'invisible »*, avec la confiance de celles qui savent qu'un avenir plein d'espérance leur est réservé.

Pour nous ouvrir à un avenir prometteur, nous avons besoin d'une Parole, d'une promesse :

« Je ferai de toi une grande nation, et je te bénirai ; je rendrai ton nom grand, et tu seras une source de bénédiction. » v. 2

Sur une parole entendue, Abraham rassemble ses possessions, tout ce qui lui est lié, tout ce qui tient à lui, tout ce qui le constitue et, de campement en campement, il parvient au Négeb.



Depuis le Chapitre 2012, nous avons essayé de rassembler ce qui nous est lié, tout ce qui nous appartient, et nous avons renforcé ce qui nous constitue Congrégation des Sœurs de la Doctrine Chrétienne.

Nous avons approfondi la page d'évangile du **lavement des pieds**, *« point focal de notre spiritualité, lieu évangélique à partir duquel tout devient lumineux et cohérent. » Chapitre 2012, page 8.*

L'aménagement de notre nouvelle **Maison Mère**, la refonte de notre **site internet** et notre nouveau **logo** ont renforcé notre identité et notre sentiment d'appartenance.

Au fil de nos recherches sur notre **spiritualité** et notre **patrimoine spirituel**, nous avons retrouvé le lien fondateur qui existe entre relation personnelle avec Dieu, vivre ensemble communautaire et mission donnée à la communauté.

Ensuite, en chœur, nous avons repris cet air de famille: « Tout le charisme de la Doctrine se conjugue avec le verbe **grandir !** »



Cependant, il ne suffisait pas de vérifier derrière nous les traces de notre passage : tandis que nous enfonceons davantage les pieux de notre tente dans notre terre commune, nous sommes restées éveillées à l'appel pressant du Pape à être une « **Eglise en sortie** ».

Ainsi, nous avons laissé résonner : « *Elargis l'espace de tes tentes, déploie tes tentures sans contrainte, allonge tes cordages.* » Is, 54,2

Le temps fort « **Ephata** » offert aux jeunes sœurs autour des 10 ans de vœux perpétuels, les réalisations concrètes dans l'art du « **Faire Corps** » sur nos différents lieux d'insertion, l'ouverture large et concrète à nos **Amis laïcs**, toutes ces expériences ont manifesté notre désir de suivre un Dieu qui est un Dieu d'alliance et de relation, un Dieu qui nous conduit hors de nos frontières, vers un possible vivre-ensemble fraternel.

La promesse principale de Dieu à Abraham n'est, ni un pays, ni un peuple, ni un nom, mais une bénédiction à quelqu'un, pour finir par une bénédiction qui s'étend d'Abraham-bénédiction à toutes les familles de la terre.

« *Je bénirai ceux qui te béniront, et je maudirai ceux qui te maudiront ; et toutes les familles de la terre seront bénies en toi.* » v.3



Au bout de nos échanges en Conseil général et en Conseil de Congrégation,

dans la ligne des accents des Chapitres précédents (ouverture à l'universel : 1988 – dialogue à quatre voix : 2006 – art du faire corps en Congrégation : 2012),

nourries et interpellées par les nombreuses exhortations dont nous a gratifiées notre Pape François depuis le début de son pontificat,

remuées au plus profond de nos cœurs par la clameur qui monte des entrailles des migrants, des exclus,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grande précarité,

nous nous sommes déterminées pour un Chapitre ancré dans les aspirations et les combats des hommes d'aujourd'hui, et nous en avons libellé le thème ainsi :

Dans ce monde aux multiples visages, l'interculturel :
un appel – une responsabilité.

Ce monde aux multiples visages, c'est une réalité à voir et à regarder objectivement.

Nous laisser interroger par nos réactions face à ce qui est « autre » et oser entrer dans le « pourquoi » de ces réactions.

Comment voir cette réalité et la situer dans un avenir porteur d'une promesse plutôt que comme une menace ?

Comment passer du « **multiculturel** » à l' « **interculturel** » ?

Comment aller plus loin et **mettre au monde la culture de l'Évangile**, en chacune de nous, en Congrégation et autour de nous ?

Il appartiendra à chacune de nous - selon ses possibles d'aujourd'hui, ses atouts et ses fragilités – de faire son pèlerinage intérieur personnel, tout en emboîtant le pas de la « caravane Doctrine ».

La grâce du Chapitre n'est pas réservée aux seules capitulantes : c'est à chacune qu'est offerte l'opportunité de renforcer son sentiment d'appartenance et de contribuer au discernement du meilleur pour les six années à venir.

Nous toutes, et ensemble, osons nous mettre en route, nous tourner vers un avenir qui fera éclater les clôtures de tous genres, vers l'utopie de la fraternité universelle.

Aujourd'hui, la fraternité universelle, c'est l'autre nom de la mission !



Le Chapitre général de 2018 se déroulera
à Luxembourg/Fieldgen
du jeudi 26 juillet au samedi 11 août 2018.

Comme en 2012, il sera animé par Sr Micheline Tremblay, religieuse canadienne de la Congrégation de la Sainte Croix.

La récollection d'entrée en Chapitre se déroulera du samedi 28 juillet/soir au dimanche 29/soir. Elle sera animée par Sr Anne Missoffe, soeur de Nazareth.

Durant deux journées, nous approfondirons le thème avec Elena Lasida.



Le Chapitre général est préparé par les **Chapitres en Provinces/Région et Assemblées**.

Avant ces rassemblements, des élections se dérouleront selon le mode et le calendrier qui vous seront indiqués lors des lancements dans vos pays respectifs.

En France, nous venons de vivre une campagne présidentielle mémorable ! La Corée a élu également son nouveau président. D'autres pays où nous sommes insérées se préparent (Chili) ou aspirent à pouvoir se préparer à cette élection.(Congo)

« Ne prenez pas pour modèle le monde présent ... » Rm, 12, 2

Bien sûr, nous ne pouvons empêcher qui que ce soit de penser, de prospecter, de consulter, de partager avec d'autres son point de vue sur telle ou telle personne, ou sur telle ou telle orientation apostolique.

Mon souhait : que l'Esprit-Saint soit toujours au rendez-vous de nos conversations ; qu'il veille sur la charité, la discrétion et le respect ; qu'il remette dans l'axe de Dieu si nécessaire. *« Le Vent de Dieu qui vous a prises fera de vous des femmes libres » !*

Le bien commun de la Congrégation et du monde, voilà le critère déterminant pour nos choix d'élections et nos choix apostoliques futurs.



« Oui, nous voyageons vers le sabbat de l'éternité, vers la nouvelle Jérusalem, vers la maison du ciel. Jésus nous dit :

« Voici, je fais toutes choses nouvelles » Ap., 21, 5.

La vie éternelle sera un émerveillement partagé où chaque créature, transformée d'une manière lumineuse, occupera sa place et aura quelque chose à apporter aux pauvres définitivement renouvelés. » Laudato si, n° 243.

En communion fraternelle avec vous, je pars aussi à la recherche du *« pays que le Seigneur fera voir ! »*

Sœur Viviane François
Supérieure générale

CALENDRIER DES DEMARCHES DE PREPARATION AU CHAPITRE GENERAL

Fin juin 2017 : Lettre de convocation de la Supérieure générale à chaque sœur

Juillet - Octobre : Assemblées de lancement du Chapitre général dans les pays

Octobre – Décembre: Etape de préparation personnelle et communautaire

Déc. 17/ Fév. 18 : Elections des capitulaires provinciales et régionales

Collecte des contributions en vue des Chapitres et des assemblées

Février18 – Avril18 : Chapitres et assemblées des Provinces, Région et Délégation

1^{er} mai 2018 : Transmission des contributions au Conseil général

Fin mai 2018 : Synthèse des contributions par le Conseil général

Elaboration du dossier capitulaire par le CG

Convocation des capitulaires générales – Information aux communautés de la liste des capitulaires générales



COMPOSITION DU CHAPITRE GENERAL

Après consultation du Conseil de Congrégation, le Conseil général a décidé du nombre de capitulaires à élire. (cf nos Constitutions, le n° 74 et le n°75.)

43 capitulaires participeront au Chapitre général.

13 membres de droit : Conseil général : 5

Econome générale : 1

Ancienne Supérieure générale : 1

Provinciales/Régionale/Déléguee : 4

Maîtresses des novices : 2

30 membres élus : Algérie : 1

Afrique subsaharienne : 5

Corée : 12

Europe : 12